

광주 카페·전남 게스트하우스 창업 활발

광주, 지난해 커피점 사업자 955명...1년새 43% 증가 전남, 올 5월까지 펜션 사업자 480명...전년비 38% 늘어

광주·전남 국제청 사업자 조사

광주지역에서는 카페 창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최근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나서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미용과 스포츠시설 분야 창업도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제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광주지역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는 9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8명보다 42.96% 늘면서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 53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8.5%나 급증한 수치다.

이러 화식·음주문화 대신 놀이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스포츠시설운영 사업자로 지

난해 122명에서 올해 172명으로 40.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가전제품 판매 사업자가 줄어 드는 것과 달리 오히려 가전제품수리점은 지난해 280명에서 올해 361명으로 28.93% 증가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에 따라 애완동물점 사업자 역시 1년 만에 170명에서 204명으로 20% 늘었다.

특히, 최근 감정평가사 사업자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광주지역 감정평가사 사업자 수는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31명으로 19.23% 증가했다. 비록 1년 사이 5명이 증가한 것이지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퇴근 후 자격증 공부에 나서는 사람도 많아지는 데다, 은퇴 후 정년과 나이제한은 없이 소득은 많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행객들 사이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전남에서는 펜션·게스트하우스 사업자가 지난 5월 기준 480명으로 1년 전 347명보다 38.33% 증가하는 등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창업아이템으로 꼽혔다. 이어 ▲가전제품수리점 418명(37.5% ↑), ▲스포츠시설운영 126명(31.25% ↑) ▲피부관리업 1105명(23.19% ↑) ▲애완용품점 160명(23.08%) 등 순이었다.

전남지역 역시 커피전문점의 경우 사업자 증가율로 따지면 5위권 밖으로 밀려 6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292명에서 올해 1543명으로 19.43%나 증가하면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면서 관련

업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광주에서는 예상장이 전년도 34명에서 28명으로 17.65% 감소했고, 결혼상담소도 80명에서 67명으로 16.25% 줄었다.

전남지역 결혼상담소 사업자로 1년새 53명에서 41명으로 22.64%나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비교적 창업이 쉬운 카페에 신규 창업자들이 몰리면서 지역 내 '창업 편식'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기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 서 유사한 업종간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사업자로 늘어나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석 JS건설링 대표는 "인기 업종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동종업계 모두 위기로 몰릴 수 있다"며 "사전에 철저한 시장·상권조사와 교육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내일채움공제 우수기업 광주 3곳 선정 만기공제금 지급...중소 직원 장기 근속 유도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용일)는 5일 내일채움공제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해 상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광주지역 내일채움공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지오씨(대표 박인철), 제이와이솔루션(대표 박상우), ㈜진양 (대표 이두형) 등 3개사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으로,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1대 2 이상 비율로 34만원 이상 매달 공동 적립한 뒤 5년 만기때 복리이자를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이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이 손비로 인정될 뿐 아니라 납입금의 25%에 대해 인력개발비로 인정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가부의 사업 참여시 평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용일 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채용지원금(청년채움)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이 제도가 확산돼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높이고 핵심인력에 2~30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광주지역본부(062-600-3015)로 방문 접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10월부터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요청시 결제계좌에 입금...카드대금도 결제 가능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카드 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준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

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에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연합뉴스

보기 힘들어진 동전

상반기 순발행액 -18억6000만원...환수액 더 많아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발행한 동전보다 환수한 동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6월 동전 발행액은 155억5000만원, 동전 환수액은 173억5600만원이다.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순발행액은 -18억6000만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새로 만들어진 동전보다 환수된 동전이 더 많아 시중에 유통되는 동전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다.

연간 기준으로 동전 순발행액은 그간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는 외환위기에 시달리던 1998년으로, 당시

순발행액은 -682억9100만원이었다. 이후 동전 순발행액은 계속해서 플러스를 기록, 시중에 유통된 동전은 계속 증가했다.

동전 순발행액이 줄어드는 것은 동전 사용이 줄면서 동전 발행 자체가 감소하는 탓이 크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늘고 간편결제 가 확대되면서 동전과 같은 현금은 서서히 밀려나는 추세다.

동전 발행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16~2017년 2년 연속 줄었다. 감소율이 확대해 지난해에는 45.7%에 달했다.

연합뉴스

자동차 보험료 10월 인상 추진

2년만에...최소 3~4% 전망

자동차보험료가 약 2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최소 3~4%, 시기는 오는 10월께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일부 대형 손보사

가 9월 또는 10월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약 20%로 예상되는 정비요금 상승이 가장 직접적 인상 요인이다. 이 때문에 연간 보험금 지급이 3000억원 늘고, 보험료에 2.9%의 인상 압박을 가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약 600개 정비업체의 등급 검증을 이번 주 중 마친다. 이를 토대로 손보사들이 8000개 정비업체들과 개별

적으로 수가 계약을 맺는다. 업계 1위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이 먼저 정비요금 상승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리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손보사들과 나머지 중·소형 손보사들이 시차를 두고 보험료를 따라 올린다.

올해 1분기 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를 기록했다. 적정 손해율 77~78%를 웃돌았다. 2분기 말 역시 80%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81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차
14	15	25	28	29	30	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380,804,318		13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76,711,351		39		
3	5개 숫자일치	1,621,541		1,845		
4	4개 숫자일치	50,000		90,205		
5	3개 숫자일치	5,000		1,490,497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